

野 단일화 일단 잡고 朴·文·安 '3각 대전'

성대결에 정당정치·새 정치 정면 충돌 양상

역대 어느 대선보다 유동성 크고 치열할 듯

범야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초반 대선 판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 원장 간 3각 구도로 짜여졌다.

특히 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대 남성'의 성(性) 대결구도로 치러지는데다 기존 정당정치와 안철수식 새로운 정치형태의 정면충돌 양상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역대 어느 선거보다 유동적이면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력 주자인 3명 모두 지역적으로 영남 출신이어서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가 사라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 주자 간 '구도' 싸움이 시작됐다. 안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정당

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체제를 시대의 속제로 규정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를 동시에 싸잡아 '낡은 체제'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그는 정치경험이 없는 자신이 '새로운 정치'의 적임자임도 적극 부각했다. 그는 이날 "정치경험뿐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빛진 것도 없다"며 "빛진 게 없는 대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큰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앞서 박 후보 측은 이미 문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해 '노무현의 그림자', '정치 무경험자'로 각각 규정해 공격했다. 문 후보와는 '박정희 대 노무현', 문·안 후보와는 '풍부한 정치 경험 대 정치 신인' 대결구도로 각각 만들어 초반 대선판을 유리한 구도로 만들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지난 18일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최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10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국민과의 (가까운) 간격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면서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길이 한결같을 때 국민이 알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단일화 상대인 안 후보에게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은 채 박 후보에 대해서만 '유신의 틀'을 씌어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초반 구도싸움 속에서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야권 단일화다. 대선판을 뒤흔들 최대 변수이기 때문이다.

일단, 안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이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단일화와 거리를 뒀다.

그럼에도 안 후보와 문 후보 간 단일화 전망은 강한 편이다. 양측이 이미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에 들어간 기류도 감지된다.

물론 단일화 전망과는 달리 일각에

선 안 후보가 독자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단일화시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염증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만큼 안 후보가 결국 새 정치를 모토로 독자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가 이날 대선 승패를 떠나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류구원' 고통속에 하나되는母子



김은영의 '그림 생각'

② 피에타(Pieta)

영상의 시대, 영상에 지배되는 오늘날, 영화가 우리 일상에 파고든 영역은 가히 경이롭다. 그런 영화는 그림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상상력을 발전시킨 경우가 많다. 그림을 닮은 듯한 영화가 적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국민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오마주로 영화 '꿈'에서 고흐의 그림을 영화 속 화면에서 재현한 바 있다.

얼마 전 베니스 영화제에서 김기덕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중세 기독교미술에서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탁월하게 표현해냈던 작품 '피에타'가 화제다. 화가였던 구로사와감독처럼, 과거를 모토로 독자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가 이날 대선 승패를 떠나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켈란젤로 작 '룬다니니 피에타'(1564년)

졌던 '룬다니니의 피에타'(1564)에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참칭(慘情)의 고통과 괴로움이 느껴진다. 아들의 죽음을 일으켜 세우려는 성모의 안간힘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본다.

영화 '피에타'의 메시지가 궁금했다. 영화를 보면서 절반은 두 눈을 가려야 했다. 영화에서라도 경협하고 싶지 않은 잔혹한 현실세계가 끔찍했다.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잔인한 아름다움이 먼저 느껴진다. 아들을 잃은 모성과는 조금 비껴서 있다. 오히려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나기 3일전까지 만

이 인맥으로 분류된다.

안 원장과 함께 '청춘 콘서트'를 한 박정철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과 이재용 다음 창업주는 오랜 지인이다.

안 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고향이 여수인데다 현재 장인이 거주하고 있어 안 원장의 호남에 대한 애정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철수처럼' '철수정책 개발연구원' 'CS코리아' 등의 안철수 지지단체 회원들이 상당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사→CEO→교수... 서울시장 양보 대선주자로

빛의만평

- 김중두



누구 들이라고 하는 소리 같군

■ 안철수 정치권 등장에서 대선 출마까지

의사이면서 벤처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 무대의 전면으로 나섰다. 지난 9월 '안철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야권의 최대 잠룡으로 자리매김한 지 1년 만이다.

◇걸어온 길=부산에서 태어난 안 원장은 서울대 의대 재학 중 의사의 길 아닌 연구의 길을 선택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쪽보다 병의 원인이나 치료방법을 발견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의학실현을 더 잘하기 위해 컴퓨터를 배웠고, 그러던 중 자신의 컴퓨터가 당시 국내에서 생소하던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직접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치료하면서 백신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곧 제대 후 단국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해 기업의 길로 들어섰다. 안철수 연구소가 벤처기업에 머무르던 시절 미국 보안 업체인 맥아피로부터 1000만 달러의 인수제의를 받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안 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04년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가장 높은 매출 및 수익을 올린 상황에서 기업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유학길에 오른 그는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경영학석사(MBA)를 받고 카리스트 교수를 지내다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6월 MBC TV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성공 스토리에 유머 감각이 더해지면서 그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가진 인물로 떠올랐고, 지난해 9월까지 청춘콘서트를

진행해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넓히며 젊은이의 '멘토'로 이미지를 확장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원장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자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 단일화 협상이나 어떤 조건도 없이 후보 자리를 전격 양보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안철수의 사람들=이날 안 원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소설가 조정래씨,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하승창 변호사,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김정현 달라이트 대표, 정연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부분 안 원장과 최근 만났거나, 교류해온 인사들이다. 이미 캠프에 합류한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강인철·조광희 변호사, 허영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이원재 전 한겨레 경제연구소

장 등도 함께 행사 진행을 맡기도 했다. 이들은 직접 합류하거나 측면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안 원장의 사람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법륜 스님이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지낸 송호창 의원도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안철수' 인사로 통한다.

학계에서는 김호기 교수뿐만 아니라 이달 초 안 원장과 비공개로 만난 강준만 전북대 교수,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영광 불갑산 상시화 축제 9월 21일 ~ 23일 (3일간) 영광 불갑사지구 관광단지 일원

Table listing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festival, including '영광기독·신하병원', '영광종합병원', '군남농업협동조합', etc.